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5)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Claude-Nicolas Ledoux의 건축이론 ①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강사
by Kim Mi-Sang

목 차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C-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C-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9.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10. Beaux-Arts와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사상에 나타난
합리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끌로드 니콜라 르두(Claude-Nicolas Ledoux)는 1736년 3월 27일 도르망(Dormans)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상업에 종사하였고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그리 부유한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일찍부터 르두에 대한 기대와 야망을 마음에 지니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르두는 부유치 못했던 경제여건 때문에 파리에서 공부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었는데 특이한 운명이 그를 공부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였다.

그의 고향 도르망에서 가장 명문인 보베 중학교(Collège de Beauvais; 끌레쥬 드 보베)는 도르망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의 학생들에게까지 널리 장학금을 주고 학업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도르망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지원하도록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르두가 그러한 호기를 잡게 된 것이다. 장 드 도르망(Jean de Dormans)이라고 하는 귀족이 1370년 이 학교를 설립하였고 그의 뜻에 따라 도르망출신의 학생들을 우대하는 전통의 덕을 르두는 단단히 보게 된 것이다. 르두는 도르망에서 학업

* 본명 김원식

을 마친 후 파리로 이주하여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그는 자신의 경력상 유익한 교육을 받은 듯 하다. 그러나 파리의 학교에는 개화된 선생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과목들은 절대적인 미와 사상을 추구한 르두의 정신세계를 묶어놓기엔 그 구속력이 불충분하였다. 데생(dessin)을 좋아하고 그에 흠뻑 심취해 있던 그는 학업을 마치고 전인 15세에 아마도 부모 몰래 학교를 떠나 전쟁장면을 새기는 판화가 밑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 때까지 건축은 그의 주된 관심사가 되질 못하였으나 차후 18세기의 예술가들에게 가장 깊고 견고한 자취를 남긴 장 프랑소아 블롱델(Jean-François Blondel)의 문을 두드리게 됨으로써 역사상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된다.

중종 사람들은 르두의 발전과정을 블롱델, Palladio, 그리고 화가이자 판화가인 Piranesi의 영향을 받은 3단계로 구분하곤 한다. 언급한 위의 두 인물로부터의 영향은 간단없이 이어졌음이 입증되고 있다. 블롱델로부터의 영향은 학문적 시각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빨리 블롱델적인 시각과 프랑스 고전주의로부터 탈피하여 방향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르두는 역사적으로 블롱델문하의 학생들 중 가장 영향을 덜 받은 사람으로 역사가 Emil Kaufmann은 기술하고 있다.¹⁾ 당시 건축 초년생으로서의 르두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스승 블롱델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에 친숙해지는 것이었다. 블롱델은 루이 14세 양식의 예술이 쇠퇴의 길로 빠졌으며 이미 부자연스럽고 나약한 양식이 되어 당시의 요구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르두는 이러한 사실을 본능적으로 받아들여 루이 14세 양식을 멀리하게 되었으며, 건축을 해당 지역의 기후 및 요구되는 기능에 맞추어 계획하여야 한다고 블롱델이 주장하는 소위 전기 기능주의적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초기단계는 학업보다는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일에 더욱 경도됨으로써 융통성과 폭넓은 시각으로 정신세계를 훨씬 더 유연하게 단련시킬 수 있었던 기간이 되었다. 이 초기단계를 거친 이후 건축을 정면으로 대하여 승부를 걸게 되는데 로마에서 돌아와 베르사유의 2가지 공사를 떠낸 건축가 트루아르(Trouard)가 르두를 고용함으로써 그의 지도하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계기가 된다. 1760년대부터는 건축설계 주문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무렵 그는 군인 카페(Café Militaire; 카페 밀리테르) 또는 고도 카페(Café Godeau)라고 불리우는 카페의 설계를 의뢰받아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트루아르로 말하자면 고딕양식의 교회 및 대사원의 장식 전문가였는데 르두가 그로부터 이러한 영향을 받아 실행에 옮긴 것

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어서 1764년 옥세르(Auxerre)대사원의 주제단 및 제단의 공간, 그리고 오르간을 정리하고 장식하도록 주문을 받았다. 이 공사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품없이 초라하여 그의 관심이 멀어졌고 공사 중 7년 동안 파리를 떠나 공사장으로 2회의 방문을 했을 뿐이다. 1778년 성스(Sens)의 대사원 문을 개축하는 주문을 받았지만 복원에 대한 열정은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스위스의 은행가 델뤼송(Thélusson)이 알월(Hallwy)공작으로부터 건물을 대여하여 사무실을 설치함과 아울러 동업자 네게르(Necker)공의 아파트로 쓰던 건물의 재축으로 인하여 르두의 직업인으로서의 생의 방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1776년 알월공작은 자기 소유의 대저택(Hôtel; 오텔)으로 되돌아 오려고 하였으며 형태의 탐구와 그 매력에 광적으로 흠뻑 도취해 있던 무명의 르두에게 설계주문을 하였다. 델뤼송은 비록 스위스인이었지만 프랑스의 샴빠뉴(Champagne)에서 태어났으며 도르망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델뤼송이 르두를 자기의 친구 알월공작에게 소개하였으리라고 일군의 이론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설에 따르면 르두는 다시 한번 출생지의 덕을 단단히 보게 되었으리라. 이 대저택은 외견상 고전주의적이며 전체적으로는 평범한 모양을 하고 있다. 단지 대문과 '회랑이 있는 정원(Cour à la Galerie; 꾸르 아 라 갈레리)'만이 르두의 개성을 드러내 보여줄 뿐이다. 어찌되었든 이 저택은 작가 르두에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르두 및 Geneve의 옹호자들과의 관계를 신뢰에 입각하여 끈끈하고 항구적인 관계로 맺어주는 기폭점이 되었다.

1년 후인 1767년엔 뒤제스(D'Uzes)공으로부터 주문을 받는데 이 프로젝트는 그 장식의 상세로 인해 파리의 장안을 떠들썩하게 뒤흔들었다. 이후 2년 동안 그는 프랑스 전역을 여행하였다. 그가 가지고 있던 고대의 건축에 관한 지식은 타인들처럼 그리스와 로마 등지로 여행을 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책을 통하여 습득한 것들이다. 여행기간 동안 베누빌(Bénoüville)에 머물며 드 리브리(de Livry)후작을 위한 Château의 평면과 기초의 계획안을 만들었다. 당시 그는 자유분방하게 별 목적이 다른 지방들을 여행하곤 하였는데 그가 책의 첫부분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여행은 그의 경력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 여행의 일환으로 모이양빅(Möiennvic), 샤토 살랭(Chateau-Salin), 롱 르 솔니에

1) Kaufmann, Emil: De Ledoux à Le Corbusier, L'Equerre, Paris, 1981, p. 24.

(Lons-le-Saulnier) 그리고 뒤외즈(Dieuze)와 같은 곳의 염전을 방문하여 많은 건축적 영감을 얻었으며 수년동안 그의 머리에서 그에 대한 인상과 기억이 지워지질 않았다. 1771년엔 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왕실소유 염전의 감시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로부터 그의 작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아크 세낭(Arc-Senans)의 염전도시에 관한 계획이 잉태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유토피아적 도시계획에서 보이는 이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급자족적인 도시계획에 관한 관심이 잘 나타난다. 그로부터 머지않아 그는 궁정과 접촉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명성이 빛을 발함에 한층 더 도움을 주게 되었다.

무신경하고 환락에 들떠 있으며 신뢰할 수 없고 변덕스러운 궁정에서 당시 한창 세력의 전성기를 누리며 당당하던 뒤바리 백작부인(Mme. Du Barry; 루이 15세의 왕비)의 따뜻한 환대를 받아 르두는 비교적 안정된 출세의 길을 달리게 되었는데 뒤바리 백작부인은 르두에게 루브시엔(Louveciennes; Luciennes(뤼시엔느)라고도 불리운다)에 다이아몬드 상자만큼 아름다운 정자를 만들어주도록 요청하였다. 이 별채는 그 안에서 그녀가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고 변덕스럽고 환락적인 코메디를 공연할 수 있는 일종의 왕실의 장난감으로 소용될 수 있는 것으로 호사와 정묘함으로 장식된 신고전주의 양식의 예술품이다. 이 건물의 외부는 형식우주의적인 엄격한 대칭적 파사드를 지니고 있고 내부는 소위 Le Corbusier의 자유평면을 연상시키는 자유로운 공간배치가 발견된다. 여기에 참가한 예술가들은 조카가 르코프뜨(Lecomte), 빠쥬(Pajou), 화가 드루에(Drouais), 프라고나르(Fragonard), 비앙(Vien), 금은세공사 Gouthières 등으로 당대에 최고의 솜씨를 자랑하던 예술가들이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르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장대한 규모의 건축을 향한 유혹을 억제하여야만 했으며 그의 독창성이 엿보이기는 하여도 섬세함을 구현하는 것에 능력을 한정시켜야 했다. 르두는 뒤바리 백작부인의 은총을 계속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의 총애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성공은 물질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었다.

1772년 르두는 드 몽모랑시(de Montmorency)왕자를 위한 대저택을 건설하였다. 이 건물은 르두의 경력상 조형의 발전이란 견지에서 볼 때 중요한 한 획을 긋게 하는 작품이 되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조화로운 파사드는 후에 르두가 평면에서 바로크적 정신을 구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텔 뒤제스(Hôtel D'uzes)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배경으로 녹아들고 있는 조각물은 Palladio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몽모랑시(Montmorency)저택이 있던 구역은 루이 16세의 섭정기간에는 연극배우, 무용수, 고관 및 재산가들의 훌륭한 저택들이 늘어서 있던 곳이었다. 여기에 살던 인물 중 주목할 만한 인물로 기마르 양(Mlle. Guimard)이 있는데 오페라의 인기스타였으며 드 수비즈(de Soubise)왕자의 연인으로 더욱 유명하였다. 어느날 이 여인은 뺨땡(Pantin)의 자기 집에 실증이 나서 새로이 등장한 청년 건축가에게 자신을 위해 저택을 설계하도록 부탁하였다. 이 저택은 Gouthières, Fragonard와 David가 협력하여 작업하여 많은 돈이 들었으나 르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충분히 보수를 받은 드문 경우였다. 몽모랑시 저택은 훌륭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1861년 Haussman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파괴되었다.

르두의 화려한 성공 및 고관대작 그리고 왕실주위에서의 활동은 그를 거의 계관건축가(桂冠建築家)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배경과 함께 그는 1773년 왕립건축아카데미(Académie Royale D'architecture)의 회원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명사, 권력자들로부터 중요한 건축설계역사가 있었다. 뒤바리 백작부인은 파리에 위치할 새로운 주거를 의뢰하였고 프랑스 국왕은 루브시엔으로부터 가까운 마을에 세워질 궁전을 의뢰하였다. 이 계획안은 구태의연한 화려함과 장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1년 후 왕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모든 계획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역시 1773년 르두는 Chau(쇼)의 염전 건물들을 보수하고 증축하는 일에 임명을 받았다. Chau의 염전은 그가 여행할 때 이미 여행한 곳이어서 낯설지 않았고 이 과정은



뒤제스 저택 (Hôtel D'uzes) 내부문 상세

알월저택 (Hôtel Hallwyl) 박공과 분수 상세

Hôtel Hallwyl 파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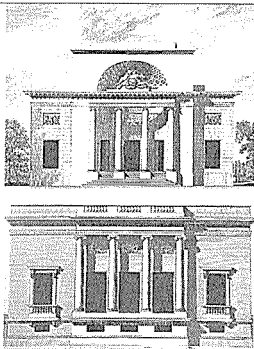
르두로 하여금 새로운 미학적, 사회적 시각들을 갖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우선 그는 파리에서 작업에 착수하여 거대한 4변형의 산업도시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그가 현장을 방문하지마자 자신의 계획에 오류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원형의 평면을 채택하였다. 이 계획안은 방사형의 도로가 평면을 구획하고 있으며 각종 홀, 대포공장, 시장, 작업장, 직공들의 집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공간들은 핵심공간, 즉 중앙의 핵을 중심으로 한 방사집중식으로 배치되었다. 각 건물은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 계획안에서 가장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부분은 신체단련과 정신교육을 위하여 마련된 공간들일 것이다. 이것은 Rousseau의 Emile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계급의 구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조합원의 집, 오락공간, 환락의 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6가족이 거주할 수 있으며 전원의 환경을 구비한 조화로운 Cénobie는 후대의 Phalanstery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남근의 형상을 한 오이께마(Öikema)는 부도덕한 형상을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타락한 영혼을 선(善)으로 이끌겠다는 다분히 자기당착적인 의도의 박물관이다. 시장, 공중욕장, 교육의 집같은 것들이 놀랍게도 현대생활을 예지하는 시설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제건물들은 오늘의 시각으로 보자면 비현실적이고 실없는 18세기 지식인들이 지녔던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너무도 많이 반영하는 듯하다. 이러한 허구적이고 근거가 빈약한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건축 내에 전개함에 있어서 형태적 접근, 즉 추상적 형태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관상학(Physiognomy)을 도입하고 있다. 그 상징적 의미들은 정의로움을 연상시키는 알굴 그리고 소위 Pacifère와 같은 법원의 단위 평면 또는 남근형으로 계획된 오이께마와 같은 이차원의 평면으로 구현된다.

장식에 있어서 암굴, 원주, 물이 얼어붙어 있는 듯한 형태를 채용하는 대담한 표현 등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것들은 종종 서로 잘 어울리지는 않아 불협화음을 일으키곤 한다. 반면 미학적인 측면과 사회학적 측면의 병치, 고전주의적 측면과 바로크적 측면의 양식적 병치는 실랭에 있어서 정신적

인 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벽에서 분출되는 물은 생기 없이 얼어붙어 있는데 이것은 소금공장의 조해작용을 상징하고 있으며 제조과정 중 생산체계와 노동력이 대등함을 상징한다. 이밖에도 시각적인 연출 가운데 순속임(Trompe l'oeil; 트롬뵈 튀이)와 Arabesque장식 등을 사용하여 평탄한 표면에 다른 표면이나 Cornice 등을 허구의 삼차원적 실체로 창조하는 것은 순수하게 바로크적인 방법이다. 위대한 고전주의를 대표했던 망사르(Mansart), 르보(Leveau), 가브리엘(Gabriel)과 같은 건축가들은 파리를 위대한 도시로 건설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지만 도시를 건축물로서 3차원적인 연출을 하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였다. 그들은 방돔광장(Place Vendôme; 뿔라스 방돔), 승리의 광장(Place des Victoires; 뿔라스 데 빅트아르), 그리고 루브르의 열주랑에서처럼 단지 그 후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마치 병풍처럼 가리는 연극무대와 같은 건축, 혹은 축제를 위한 건축밖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나 르두는 이들과 달리 각 건물을 3차원적 조각물처럼 다루고 있으며 각 건물이 효과적으로 관찰되도록 충분한 거리, 그리고 각 건물의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하였다. 각 건물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급된 당시의 건축가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축요소들을 따로 분리하였다.

Chaux의 계획에서 특기할 점은 그가 대규모 스케일 상에서 자기의 사상을 실현하려고 한 점이다. 그는 전통적인 도시계획의 개념을 버리고 도시를 하나의 상업로, 교통로가 만나고 이어지는 결절점으로 생각하였다. 교통로는 두 개의 커다란 축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귀착점은 시의 중앙부이다. 중앙의 핵은 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도시를 구성하는 노동자의 집, 사무원의 집, 소금 저장소, 관리자의 집 등의 건물은 그 주변에 분산 배치되었다. 공간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드는 고립된 Pavilion을 떨어뜨려 배치함으로써 바로크건축 등에서 볼 수 있던 과시와 장식은 엄격히 억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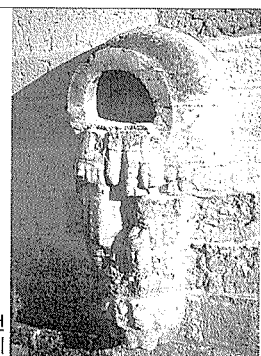
이 계획안은 르두 자신의 말을 빌면 25년 정도 시대를 앞선 작품이다. 그에 대한 시기 질투, 비판은 왕과의



기마르 저택 (Hôtel Guimard)



얼어붙은 모양의 물분출, Arc-et-Seans의 염전



Chaux의 염전 물분출 조각 상세

이간질로 이어졌으나 왕은 고문들의 충고를 물리치고 소위 미치광이 같은 르두의 염전계획안에 도장을 찍었다. Chaux의 염전계획안은 공사가 시작되어 실현되기까지 1년을 기다렸어야 했고 부분적인 완성이라도 빛을 보기 위해서 4년을 기다려야 했다. 이토록 일의 진척이 늦어짐에 따라 르두는 그 사이 다른 계획안 등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브장송 극장(Théâtre de Besançon; 떼아트 르 드 브장송)계획안이다. 실(室)은 반원형이고 좌석표는 무대와 관객석까지의 거리에 비례하여 값이 결정된다. 여기서 품위 있는 파사드 및 실과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완전한 합목적성의 추구는 높이 살만하다.

르두가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인지도는 권세가 및 재산가들로부터 건축물을 설계해달라는 의뢰를 받는 것에 많은 기어를 하였다. 그 중 빼어놓을 수 없는 고객들은 바로 외국의 왕실 인물 또는 호사가들이었다. 프러시아의 Hesse-Cassel 백작은 당시 가장 열성적인 후원자였다. 그는 파리에 체류 중 Guimard의 저택을 방문하였고 르두를 만나서 기마르 저택에서 그가 경험한 우아함과 호사로움을 능가하는 건물을 Cassel에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전하며 자기 도시에 와 줄 것을 요청하였다. 1775년 11월 말 르두는 궁전, 개선문, 도서관을 세우기 위하여 전속 제도사와 함께 Cassel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러나 Cassel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험담, 그리고 백작이 그를 하인처럼 부리며 그의 아이디어를 빼내려고 하는 기도에 접하게 되었다.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던 르두는 굴하지 않았고 연속된 부당한 대우에 급기야 화가 폭발하자 백작은 그를 건물 총감독 및 지휘자로 임명함으로써 진정시키고 달래었다. 르두는 곧바로 일에 착수하여 백작의 마음을 사로잡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그러나 백작은 르두의 계획을 언제나 험담으로 즉시 모방하고 실현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프랑스의 건축가 샤를르 뒤 리(Charles du Ry)를 동원하여 그에게 흥정을 시작하자 르두는 냉담하게 반응하였다. '저는 제 계획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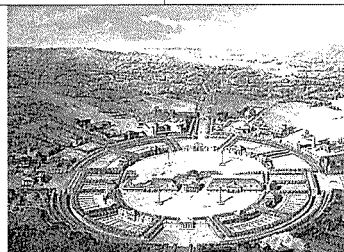
하나도 바꾸지 않으렵니다. 전하께서는 저와 같은 건축가를 두 실만큼 부유하지는 않으신 것 같군요'라는 말을 남기고 그를 떠났다.

르두가 건설한 건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논란이 많은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델뤼송 저택(Hôtel Thelusson; 오텔 델뤼송)이다. 이 저택은 대지가 약하여 Pilotis 등을 채용한 견고한 하부구조를 건설하는 등 최초의 추산비용보다 5배 이상이 소요된 호화로운 주택이었다. 1780년에 지어진 이 저택은 델뤼송 부인의 두 아들이 사용하도록 마련된 별채가 양측 면에 배치되었고 정자가 대정원을 지배함으로써 전체는 다양한 건물들의 앙상블로 이루어지고 있다. 별난 방의 배치, 장려한 장식과 가구, 그리고 대문으로부터 시작하여 건물의 지하를 통해 대정원까지 마차를 인도하는 낮선 통로 등은 장안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고 많은 이들의 화젯거리였다. 파리에서 개인의 주택이 이처럼 많은 반향을 일으킨 것은 거의 없는 일이었다. 기념비적인 흥예와 풍경화를 묘사하는 장식 등이 Piranesi를 연상시키고 파사드의 명확한 분절과 리듬은 Palladio의 건축적 수법과 동일하다. 건물의 육중한 양태와 그 형태에 있어서 엄정한 데카르트식의 명증성, 그리고 르두만이 가지고 있는 색다르고 비범한 기법 등이 이 건물을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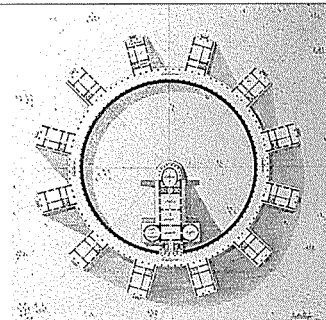
1782년 총괄 징세 청부인단(Le Fermiers Généraux; 레 페르미에 제네로)는 파리 주위의 성벽을 쌓을 허가를 받았다. 성벽은 방어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통행을 관리하여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계획에 르두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의 관심사는 이 성벽이 지니는 통제적 성격 및 입시세징수소(入市稅徵收所)의 재정적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파리를 감싸는 석조의 건축적인 구조물, 그리고 입시세관의 조형적 연출에 있었다. 이 성벽 및 입시세관에 관한 건축제안물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2개의 안이 경합을 벌였다. 하나는 현실주의적인 총괄 징세 청부인단 및 이 때가 르두를 깎아 내리기에 좋은 최적기라고 생각한 완고한 일군의



Chaux의 평면



Chaux의 도시 조감도



오이께마(Okema) 평면

건축가들, 그리고 르두 및 그를 지지하는 깔론(Calonne) 등의 두 무리로 양분된다. 결과는 미적 감각이 무디고 관심이 없었던 왕이 르두와 깔론의 계획안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분란은 일단락 되었다. 1785년 왕립이사회는 르두의 계획안을 승인하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40개의 관리소가 동시에 착공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미 당시 파리에서는 이 성벽과 입시세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여러 가지의 노래로 표현되었다. 그 중 동일 발음의 이의어(異義語)와 단어간 색다른 운율을 가지고 엮은 다음의 노래가 대표적인 것이다.

Le mur murant Paris rend Paris murmurant
-빠리를 둘러싸는 성벽이 빠리로 하여금 투덜거리게 한다.

이처럼 불만이 고조되자 불과 몇 개월 전에 르두를 지지하고 격려하던 루이 16세는 국가로부터 막대한 재정의 지출을 하도록 만든 인물이라는 루머를 믿게 되었고 공공연히 그의 성실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르두는 그 계획안의 규모를 별로 손상하지 않고 장식 등을 단순화함으로써 견적서의 대금을 줄여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총괄 징세 청부인단은 이러한 흥정을 사기로 고발하였다. 르두는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악인으로 불리웠고 1789년의 프랑스혁명으로 모든 계획을 단념하여야만 하였다.

이 성벽들은 파리의 어느 곳에서든 눈에 들어오도록 계획되었는데 각 입시세 관리소는 교외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대로들의 교차로에 위치되었다. 르두에게 있어서 이 관리소들은 착취와 통제와 상징이라기보다는 환영의 제스처와 같은 의미, 외부인들에게는 파리시내의 아름다움을 예견케 하는 장중한 인사와 기대감 등을 건축적으로 구현하고 증폭시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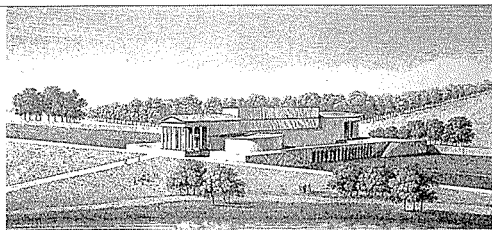
입시세 징수소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원주가 채용되고 창이 없기 때문에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징수소는 각기 다른 기하학적 형태, 즉 원천적 기하학 형태

를 채용하고 대칭적 엄격성을 외부에 실현하였다. 반면에 내부는 자유로운 기능성을 부여하고 있어서 르두의 입시세징수소만큼 외부형태와 기능, 건물의 실루엣과 평면 사이의 이만큼 커다란 괴리를 보여주는 것은 없다. 또한 형태의 호탕함, 작가의 왕성한 상상력을 이만큼 잘 보여주는 것 역시 다른 작가의 작품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대조적 수법을 지향한 그의 의지는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조형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밝혀진다. 유클리드 혹은 데카르트적인 단순한 단일 입체 형태와 원주의 나열, 열주와 평벽(平壁), 장방형과 구, 수직선과 수평선의 대립 등이 그것이다.

르두를 건축적으로는 성공한 건축가로서 고려할 수 있다면 그의 정치적인 생활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르두는 특권세력에 의하여 지위와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 그의 말년에 밀어닥친 정치적 소용돌이의 희생이 되어 수감된다. 수감에서 풀려난 후 그는 건축인으로서의 생명이 끊겨 좌절 속에서 지냈다. 그는 생의 마지막 10년간 동안 그 동안 계획하였던 작품들을 모아 당대의 소용돌이로 인한 한을 후학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론적인 연구물을 만드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다. 1804년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예술, 도덕 그리고 법률의 관점에서 고찰된 건축(L'architecture considérée sous le rapport de l'art, des moeurs et de la législation)이 출간되었다.²⁾

르두는 프랑스혁명을 중심으로 두 시대의 경계선에서 살다 간 인물이다. 그의 작품들은 새로운 예술적 건축을 겨냥한 최초의 것으로 신세계의 도래를 증거고 있다. 그러나 그의 건축 그리고 당대의 건축사상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고 연결되는지를 밝히고 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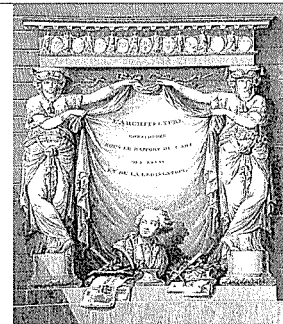
2) Claude-Nicolas Ledoux의 L'Architecture considérée sous le rapport de l'art: de moeurs et de la législation은 1997년 재출판되었다.
Claude-Nicolas Ledoux: L'Architecture considérée sous le rapport de l'art: de moeurs et de la législation, Hermann, Editeur des Sciences et des arts, Paris, 1997 참조.



오이케마(Ökema) 투시도



Psassy의 입시 징세소



Architecture Condiderée...의 속표지